

〈자유연계 II 08:40~09:30〉

고령 환자에서 견관절 전방 탈구 후 회전근 개의 복원술의 결과

박진영* · Wiater JM · Freehill M · Levine WN · Pollock RG · LU Bigliani

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*, The Shoulder Service, New York Orthopaedic Hospital, Columbia Presbyterian Medical Center, New York, U.S.A

서론

40세 이상 환자에서 견관절 전방탈구가 발생하면 회전근 개 파열과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환자에서 견관절 전방 탈구 후 발생한 회전근 개 파열에 대한 복원술의 장기 추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연구대상 및 방법

견관절 전방 탈구 후 회전근 개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. 평균 연령은 64세(범위:40-78세) 이었다.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7년 사이에 시행된 710명의 1차 회전근 개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 중 2.9% 이었다. 남자는 10례, 여자는 11례였다. 모든 환자는 외상에 의한 탈구였고, 5명(24%)은 재발성 탈구였다. 10례의 환자(48%)에서 액와 신경이나 상완 신경총 손상이 동반되었다. 신경학적 손상을 있었던 10례의 환자는 술전 능동적 거상이 평균 39도였으나,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11례의 환자는 125도였다. 회전근 개 복원술은 최초 탈구 후 평균 8개월 후 시행되었다. 17례(81%)는 파열이 크거나(large) 광범위(massive) 파열이었고, 4례(19%)는 Bankart 병변을 동시에 복원하였다.

결과

평균 추시기간은 8.9년(범위:2-16)이었다. 16례(76%)는 양호하거나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, 5례(24%)는 불만족스런 결과를 보였다. 모든 환자에서 통증 경감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. 술 후 능동적 거상은 평균 148도(60도 증가), 외 회전 55도(26도 증가) 내 회전은 T8 이었고, 모든 환자에서 가장 최근의 추시까지 재발의 불안정을 보이지 않았다. 불만족스런 결과를 보인 4례는 동반된 신경 손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력 약화 소견을 보였다.

결론

탈구 후 지속적 통증과 약화를 가진 4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회전근 개 파열과 신경손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, 신경학적 손상의 비율은 높았고,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. 비록 4례에서만 불안정성에 대한 동시적 복원술이 수행되었지만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재탈구는 발생하지 않았다. 회전근 개 복원술은 신경학적으로 회복된 환자에서 만족스런 통증의 경감과 안정성 및 기능 회복을 보였다.